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보유 현황과 시사점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연금가입 현황을 통하여 노후소득 보장의 관점에서 충분성 여부를 살펴보았음

- 향후 은퇴자 비중 증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저소득계층 외에도 보유 자산이 적은 최하위 자산계층 및 비자발적 은퇴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1. 서론

□ 통상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란 전쟁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임

○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이 끝난 뒤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의 9년간에 걸쳐 태어난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그 규모는 약 713만 명으로 총인구에 대한 비중은 14.6%에 달하고 있음

○ 생애주기상 중년에 해당하는 이들은 청년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하였고, 장년기에 외환위기를 겪은 사람들로 그동안 소비와 생산의 중추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임

○ 이들 베이비부머 중 취업자는 약 532만명 규모이며, 그 중에서 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규모는 약 312만명에 이른다

□ 이들 베이비붐 세대는 대부분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핵심 생산계층이었던 이들의 은퇴는 다시 숙련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여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과거 일본의 경험에서도 단카이 세대의 은퇴 이후에 숙련노동자의 부족과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저하가 관찰된 바 있음

○ 베이비 붐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 교육에 힘 쓴 결과,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산이 충분히 축적하지 못하였음

○ 물론 이들의 노후 생활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임금소득의 획득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아직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음

-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근로소득자의 감소로 예상되는 조세수입의 감소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로 인하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수입의 규모는 7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함(이철선, 2009년)¹⁾
 - 만일 베이비 붐 이후 세대에서 이 부담을 추가로 떠안지 않는다면 정부의 부채규모가 그만큼 늘어나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임
- 베이비부머들의 자산보유 실태를 살펴보면 총자산은 약 3억4천만원, 총부채가 6천만원, 그리고 순자산 규모는 2억8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중에서 금융자산은 약 6천만원에 불과하여 별도의 근로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 은퇴 이후의 소비지출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함
- 또 다른 문제는 자산가치의 하락에 관한 것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한 이후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음
 - 구체적으로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 출생자)가 은퇴를 시작한 시기인 2007년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한 바 있음
 - 일본 또한 1차 베이비붐 세대(1929~1938년생)가 은퇴를 시작한 1990년 무렵부터 주택가격의 하락을 경험하였음
- 우리나라도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시작하는 2011년 이후부터 자산 가격 하락과 그로 인한 주택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으며, 노후대비를 위하여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노후보장 문제가 시급한 사회현안으로 떠오르게 될 것임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및 사회적 특성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와의 비교를 통하여 자산보유 현황을 살펴보고,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가입 현황을 통하여 노후소득 보장의 관점에서 충분성 여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함

2.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

- 통계청의 '2010년 가계자산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가계총자산 3.4억원 중 부동산 형태로 2.6억원, 저축액 7천만원, 기타자산으로 950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는 부동산이 76.3%, 총저축이 20.8%, 기타자산이 2.8% 수준이었음

1) 9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규모는 712만명이고, 동 기간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는 547만명임. 따라서 (712만명 - 547만명) × 467만원 = 7조7천억원임

-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적으로 5천8백만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4천1백만원은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며, 1천7백만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것이었음
- 가계가 보유한 실제적인 자산규모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베이비부머의 순자산 규모는 2억8천만원으로, 전체 가구평균인 2억3천만원보다 5천만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베이비부머가구의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은 각각 4천8백만원과 3천6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평균인 3천8백만원과 2억9천만원에 비하면 경상소득은 천만원, 그리고 가처분소득은 7백만원 정도 더 높았음
- 순자산의 경상소득에 대한 비율은 5.9%, 순자산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비율은 7.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자산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3.3%에 달하였음

〈표 1〉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

(단위: 가구, 만원)

구분	전체			
	이전세대	베이비부머	이후세대	
가구 수	10,000.0	3,504.0	2,212.0	4,284.0
(가중치)	100.0	35.1	21.8	43.1
총자산	27,268	30,697	33,775	21,191
- 부동산자산	20,661	25,912	25,785	13,798
· 거주주택	11,564	13,803	13,738	8,644
· 거주주택 이외	8,917	12,033	11,725	4,962
- 기타자산	779	523	948	902
· 자동차	587	354	740	699
- 저축총액	5,828	4,262	7,042	6,491
· 저축액	4,089	3,614	5,387	3,821
· 전세보증금	1,546	559.4	1,480.8	2,381.7
· 월세보증금	193	88.4	174.0	287.9
순자산액	23,005	27,191	28,015	17,067
부채총액	4,263	3,506	5,761	4,124
- 부채액	2,884	1,932	4,084	3,052
· 금융대출	2,880	1,930	4,079	3,047
· 임대보증금	1,380	1,573	1,677	1,072
경상소득	3,771	2,533	4,760	4,279
가처분소득	2,912	1,971	3,619	3,321

- 금융자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구당 평균 7,042만원의 저축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립식저축이 3,160만원, 전세보증금이 1,481만원이었음. 목돈투자 중 예치식저축은 1,223만원, 주식투자는 49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채권은 4.2만원으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금융자산의 구성

(단위: 가구, 만원)

구분	전체	세대		
		이전세대	베이비부머	이후세대
가구 수	10,000.0	3,504.0	2,212.0	4,284.0
(가중치)	100.0	35.1	21.8	43.1
총저축	5,828.2	4,261.7	7,041.6	6,490.6
1. 저축액	4,089.2	3,613.7	5,386.7	3,820.9
- 적립식	2,323.3	1,526.4	3,160.4	2,549.2
- 목돈투자	1,432.8	1,860.7	1,722.3	938.3
· 예치식저축	1,103.6	1,584.3	1,223.0	652.1
· 주식	322.6	272.2	495.2	276.4
· 채권	5.7	2.6	4.2	9.0
- 기타저축	333.1	226.7	504.0	333.3
2. 전세보증금	1,545.9	559.4	1,480.8	2,381.8
3. 월세보증금	193.1	88.4	174.0	288.0

□ 〈표 3〉은 소득분위별로 자산과 부채 현황을 정리한 것인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산, 저축, 부채 모두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자산, 저축, 순자산 등의 전체평균이 4분위의 평균값 부근에 나타나는 것은 이들 대부분이 고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표 3〉 소득분위별 순자산 · 주택자산 · 부채

(단위: 만원)

구분	총자산	주택자산	총저축	총부채	순자산
1분위	5,851.5	2,704.9	1,766.9	1,293.7	4,557.8
2분위	12,675.3	5,996.6	3,235.5	2,309.7	10,365.5
3분위	20,035.1	9,031.7	4,646.2	3,479.6	16,555.5
4분위	32,918.0	14,036.1	6,687.4	5,230.0	27,687.9
5분위	63,922.1	24,317.6	12,664.8	11,005.0	52,917.1
100만원 이하	5,783.7	2,884.0	1,791.7	1,170.6	4,613.1
101~200만원	9,576.1	4,251.3	3,009.0	1,998.5	7,577.5
201~300만원	17,255.6	8,137.2	4,113.2	3,065.5	14,190.1
301~400만원	26,570.5	11,413.0	5,302.2	4,993.9	21,576.6
401~500만원	31,146.2	14,483.0	6,604.1	4,353.4	26,792.8
501~600만원	38,926.3	15,113.4	7,524.9	6,095.8	32,830.4
601~700만원	45,740.7	21,043.9	8,872.8	6,929.1	38,811.6
701~800만원	56,405.8	22,036.1	9,486.6	8,566.9	47,838.9
801~900만원	55,111.8	25,274.9	11,240.2	11,487.1	43,624.6
900만원 이상	97,501.8	31,536.0	20,265.9	17,532.6	79,969.2

주: 소득5분위의 기준은 120만원 이하가 1분위, 120~240만원이 2분위, 240~362만원이 3분위, 362~559만원이 4분위, 그 이상은 5분위임

□ <표 4>는 순자산분위별 자산·부채 규모를 정리한 것임. 1분위의 경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값인 순자산의 값이 음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중 금액이 큰 상당수는 자영업자인 것으로 보임

○ 5분위의 경우 3억2천만원 정도의 주택자산과 1억4천만원의 총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외에도 1억천만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서 순자산 평균은 7억2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주택자산, 총저축, 순자산의 전체평균이 순자산 4분위계층의 평균값에 인접하게 나타나 자산분포 역시 상위층 집중현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음

<표 4> 순자산분위별 순자산·주택자산·부채

(단위: 만원)

구분	총자산	주택자산	총저축	총부채	순자산
전체	33,775.2	13,737.5	7,041.5	5,760.6	28,014.6
1분위	2,824.7	551.0	1,368.1	3,805.1	-980.4
2분위	7,446.3	2,931.7	3,437.6	2,281.4	5,164.8
3분위	14,806.5	7,169.2	4,647.1	2,910.2	11,896.3
4분위	28,892.4	13,833.5	6,863.2	5,410.5	23,481.9
5분위	83,434.1	32,019.6	14,178.4	11,041.9	72,392.2
00이하	4,554.2	1,027.4	1,728.6	10,653.8	-6,099.5
0-5천만원	3,680.2	935.7	2,010.8	1,488.3	2,191.8
5천~1억원	9,643.3	4,376.7	3,900.6	2,258.6	7,384.7
1~2억원	18,043.2	4,903.4	9,425.3	3,521.0	14,522.2
2~3억원	29,897.6	14,517.3	6,910.0	5,324.2	24,573.4
3~5억원	45,616.3	21,579.0	9,601.0	6,837.8	38,778.5
5~7.5억원	70,574.3	29,892.5	13,734.7	10,233.6	60,340.6
7.5~10억원	98,245.8	38,123.3	16,414.6	12,489.8	85,756.0
10억원 이상	204,059.5	56,215.7	27,347.6	25,357.6	178,701.8

주: 자산 5분위의 기준은 1분위는 2,590만원 이하, 2분위는 8,080만원 이하, 3분위는 16,070만원 이하, 4분위는 32,496만원 이하이고, 그 이상은 5분위에 속함

□ <표 5>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상태별 자산현황을 정리하고 있음

○ 연간소득은 '상용직' 이 5,66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 이 5,394만원, '무급 및 기타' 가 4,114만원, '임시 및 일용직' 이 2,636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임시 및 일용직' 은 상용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저축총액은 '상용직' 이 8,988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영업' 이 7,358만원, '무급 및 기타' 가 4,711만원, '임시 및 일용직' 이 2,046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부채총액의 경우 '자영업자' 가 8,828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용직' 이 5,153만원, '무급 및 기타' 가 4,338만원, 그리고 '임시 및 일용직' 이 2,046만원이었음

○ 부동산자산은 '자영업자' 가 3억5천2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 이 2억7,305만원, '무급 및 기타' 가 1억8,535만원, '임시 및 일용직' 이 8,183만원이었음

〈표 5〉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상태별 자산현황(2009년 기준)

(단위: 명, 세, 만원)

구분	베이비부머 전체	고용상태별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	무급 및 기타
관찰치수	2,034.0	838.0	357.0	806.0	33.0
(가중치)	100.0	40.8	18.3	39.2	1.7
가구원수	3.5	3.7	3.1	3.6	3.0
연령	50.8	50.5	51.1	50.9	51.2
연간소득	4,976.9	5,661.0	2,636.6	5,394.6	4,114.2
총자산	34,854.5	37,344.0	11,508.0	43,627.9	23,963.8
저축총액	7,178.7	8,987.8	2,994.1	7,357.9	4,710.5
부채총액	6,012.5	5,153.2	2,046.1	8,827.6	4,337.9
부동산	26,686.4	27,305.2	8,182.8	35,026.1	18,535.3
기타자산	989.2	1,050.9	331.0	1,243.9	717.9
순자산	28,841.9	32,190.7	9,461.8	34,800.3	19,625.9

3. 베이비부머의 연금가입 현황

- 베이비부머의 연금 가입실태를 살펴보고, 노후보장패널 자료를 통하여 은퇴 이후 노후소득 불충분성 정도를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함
- 2009년 말 기준으로 베이비부머 중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은 490.6만명인데, 전체 베이비부머 인구 714.2만명의 68.7%에 해당함
 - 이를 다시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는 85.3%, 그리고 여자는 51.7%가 가입이력이 있는데, 남자의 가입이력 보유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80%를 넘어 가지만 여성은 대부분 50% 수준임
 - 평균납부기간을 살펴보면 남자는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평균 10년을 넘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수급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여자의 경우 평균 가입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노령연금수급권을 얻기 어려운 실정임
- 베이비부머 중 남성은 대부분 노령연금 수급자가 될 것으로 보이며, 평균 연금액은 2009년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약 35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임
 - 여성은 기여 이력자 비율이 50%대 인데다가, 기여기간 또한 5년 정도로 짧아서 대부분의 경우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낮거나 혹은 받는다고 하더라도 18만원 정도의 아주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 요약하면 베이비부머 인구 중 68.7%가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는 85.3%, 여자는 51.7%가 가입이력을 가지고 있음

- 그런데 남자는 평균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서 대다수가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지만 여자는 평균가입기간이 5년 정도이어서 일부만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베이비부머 중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출생년도에 따라 증가하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합하면 73.5% 정도가 공적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들의 평균 수급액은 월 35만원 정도여서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을 것으로 보임

〈표 6〉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금가입률(2009년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취업자	비취업자	남자	여자
a. 공적연금만	19.0	24.5	8.0	39.2	14.0
b. 퇴직연금만	1.0	1.5	0.0	1.9	0.7
c. 개인연금만	6.1	5.0	8.2	0.6	7.4
d. 공적연금+개인연금	3.2	4.4	0.9	5.0	2.8
e. 공적연금+퇴직연금	9.9	14.9	0.0	14.1	8.9
f. 공적+퇴직+개인연금	2.4	3.6	0.0	8.7	0.8
g. 무연금	58.5	46.2	82.9	30.4	65.4
-공적연금 가입(a,d,e,f)	34.5	47.4	8.9	67.1	26.4
-퇴직연금 가입(b,e,f)	13.3	19.9	0.0	24.8	10.4
-개인연금 가입(c,d,f)	11.7	13.0	9.1	14.4	11.0
전체(a~g)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노후보장패널 3차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4. 요약 및 시사점

- 향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세로 돌아서게 되고,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6년 이후부터는 유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1인 가구 및 부부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가구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가구당 인원수는 점차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근로계층의 노인부양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2010년 현재는 6.6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22년에는 4.1명, 2027년에는 3.1명이 노인 1명을 각각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대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임
- 비록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에서 은퇴 전 자산축적규모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현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연금자산의 충분성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 하위 20%는 최저생계비를 지출하기에도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노후를 위한 대비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또 무주택자와 비정규직종사자 역시 소득 및 자산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노후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 여성가구주는 은퇴전 소득수준이 낮아서 소비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여성 은퇴자의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 소득수준을 감안한 경우에는 현재소득이 1~2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노후소득부족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1~3분위, 여자의 경우 1~4분위에서도 은퇴 이후 노후소득 부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향후 은퇴자 비중 증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저소득계층 외에도 보유 자산이 적은 최하위 자산계층 및 비자발적 은퇴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과 더불어 건강한 고령자들이 근로를 통한 소득확보가 가능하도록 일본의 계속고용제도와 같은 중고령층 일자리 유지 또는 창출 방안, 은퇴 전후 소득 및 소비 변화폭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임금제도의 개선, 저소득계층의 노후대비를 위한 사적저축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봄

남상호(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 문의(02-380-810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